

국내 아동학대 뉴스에 대한 비판적 담론분석 ‘원영이 사건’을 중심으로

김해연 중앙대학교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과 박사과정

강진숙 중앙대학교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부 교수

본 연구의 목적은 아동학대 뉴스에 대한 비판적 담론분석을 통해 사회적 소외계층이자 소수자인 어린이의 열악한 삶의 환경과 폭력 현상들을 비판하고 대응책을 모색하는 데 있다. 이를 위해 페어클러프(Fairclough)의 비판적 담론분석방법(Critical Discourse Analysis)을 적용해 최근 이슈가 되었던 아동학대 사망 사건 가운데 하나인 ‘원영이 사건’을 중심으로 국내 네 개 언론사의 기사를 갖고 담론형성 방식과 사회적 실천의 함의들을 살펴보았다. 분석 결과 각 언론사별로 종합하여 추출된 주요담론으로는 가해자들에 대한 비난 및 혐오담론, 그리고 아동학대를 야기하는 가정폭력담론이 나타났으며 아동인권 담론과 친권 및 양육권 담론 및 부모교육담론과 아동학대정책담론이 집중적으로 나타났다. 담론의 실천적 함의로는 <경향신문>, <동아일보>, <조선일보>, <한겨레> 모두 부모교육과 친권문제로 비롯된 양육권 문제의 해결방안에 대한 실천적 함의를 발견했다. 그러나 아동학대라는 사안의 중대성에 비해 이러한 담론의 확장에도 불구하고 사회 실천의 장이 쉽게 열리지는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아동학대 담론이 거대담론으로 확대되는 추세에 비해 실효성 있는 대응 작업이 수반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본 연구의 의의는 우리 사회 언론이 아동학대담론을 형성하고 사회적 실천 방안들을 도출하는 입장들을 페어클러프의 비판적 담론분석 차원에서 탐구하고 사회적 문제의 해결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는 데 있다.

핵심어: 아동학대, 뉴스담론, 폐쇄, 페어클러프(Fairclough), 비판적 담론분석

* may7577@daum.net, 주저자

** jskang1@cau.ac.kr, 교신저자

1. 문제제기와 연구목적

뉴스의 토픽은 때때로 빛이 아닌 어둠 속에서 생산된다. 이는 사회적 문제를 밝히려는 언론인의 책임과 사명의 발로이지만, 또 다른 한편 어두운 현실을 조명할 때 뉴스 이용자의 관심과 정서를 자극할 수 있기 때문이기도 하다. 하지만 최근 아동 학대의 문제에 이어 이슈화되고 있는 이주민과 여성혐오 현상 등의 사회적 문제들은 그러한 책임이나 관심 수위를 넘어선다. 어린이와 청소년, 여성, 이주민 등 사회적 소수자의 안전망에 대한 파열이 살인과 폭력행위의 보도를 통해 빈번히 목도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 중에서도 최근 2016년 초에 아동실종 사건으로 보도된 후에 부모의 아동학대 사망 사건으로 결론이 난 '원영이 사건'은 우리에게 큰 충격을 가져다주어 이슈가 된 일이다. 특히 아동학대 사망 사건은 지속적으로 보도되면서 점차 사회적으로 심각하고 중요한 의제로 부상하였다. 우리나라의 경우, 지난 2000년부터 2013년까지의 사례만 종합해도 아동학대로 인해 사망한 어린이의 수는 약 119명으로 보고된 바 있다(이세원, 2015). 여기에 가정에서 일어나는 아동학대뿐 아니라 어린이집 등 기관에서 발생하는 아동학대 관련 사고까지 포함하면 그 수는 더욱 증가할 것이다. 이런 현상을 두고 조재현(2015)은 아이들의 경우 신체적·정신적 측면에서 스스로를 방어하거나 안전을 유지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아동인권의 보호와 안전망 구축이 절실함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못한 사회적 현실이 반영된 것이라고 설명한 바 있다.

이렇듯 아동학대 사건·사고가 끊이지 않자 정부는 2016년 3월 29일 '제8차 아동정책조정위원회'를 열고 관계부처 합동 아동학대 방지 대책을 논의하는 등 타개책을 모색하였다. 논의의 취지는 학대아동 발견 후 조치를 취하던 단일한 방식에서 나아가 이를 미리 예방하는 데에 근본적 목적이 있었다(김은유, 2016, 3, 30). 또한 정부는 사상 처음으로 초·중학생 미취학 및 장기결석 전수조사를 실시하기에 이르렀고 이를 통해 조사 대상 아동 전체 2,892명 가운데 35명의 학대 피해 아동과 다른 이유 등으로 의무교육을 받지 못하는 아동 708명을 발견하게 되었다. 그 결과 교육청에 설치되는 아동학대 전담기구를 통해 대상 아이들을 관리할 방침을 관계 부처에서 마련하고 있다(진명선, 2016, 4, 25). 이러한 현실을 반영하듯 김현옥(2016)에 의하면 가정에서의 아동학대 가해 부모나 지역사회 요인들과 관련하여 아동학대가 발생하는 다양한 원인들이 새롭게 규명되고 있다. 이는 아동학대 담론이 사회적 거대담론으로 확산되는 원인과 연관해 이미 아동학대 관련 뉴스가 대중 및 국가에 경종을 울리는 핵심 사안이 되었음을 반증한다.

뉴스는 우리 주변에서 다양하게 발생하는 사건, 사고들을 미디어의 보도 틀에 맞추어

재구성한 이야기다(윤영철, 2009: 김선남, 2016, 13쪽 재인용). 즉, 아동학대 관련 뉴스 등을 통해서도 미디어 그 자체가 지배이데올로기의 정교화를 이루는 공간으로서 기능하는 것임을 알 수 있다(박선웅, 2000). 홀(Hall, 1980/1996)에 따르면, 미디어는 사회적 현실을 단순히 반영하는 것에서 그치는 게 아니라 재현 과정에서 지배담론을 선택하여 제시하는 인과과정으로써 파악이 가능하다. 이를테면 아동학대 관련 뉴스의 담론 또한 미디어의 선택에 의해 보도되는 것이어서 수용자는 친부모의 살인이나 학대, 계모의 학대와 살인, 어린이집 교사의 폭력적 학대 등의 사건을 능동적 혹은 수동적으로 접하는 과정에서 미디어가 그려내는 담론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일 우려가 있다. 여기에 미셸 페쇠(Michel Pêcheux)의 담론이론에 근거하여 뉴스를 통해 생산된 담론의 재생산 메커니즘을 분석할 이유가 존재한다. 페쇠가 강조하듯이, 담론이 재생산되고 현실 사회의 변화가 가능한 것은 담론적 실천을 통해 의미작용과 주체형성이 이루어지기 때문이다(강진숙, 2016). 파올러(Fowler, 1991)에 의하면, 비판 언어학적 담론분석은 담론 안의 이데올로기적 입장과 권력의 형태를 도출할 수 있도록 한다. 즉, 담론 생산자의 의도가 미디어 전반적인 내용의 텍스트적 구조에서 어떻게 반영되는지 파악할 수 있는 것이다(van Dijk, 1983).

원영이처럼 이미 사망 후 발견된 아동학대 사건은 특히 사후 상황만 가지고 논의되기에는 한계가 있다. 아동학대로 야기되는 아동의 생명 혹은 신체에 대한 위협은 학대가 발생된 이후에는 회복이 어렵고 행정적 개입으로도 문제해결이 쉽지 않기 때문이다(조재현, 2015). 이에 따라 미디어를 통한 아동학대 이슈 보도가 바람직하게 담론 형성을 하고 있는지 알아봐야 한다. 그리고 그 안에서 담론이 어떠한 규칙과 권력성을 갖고 이를 실천적 함의로 이끌어내는지 파악할 필요가 대두된다. 그러므로 본 연구에서는 담론형성과 실천을 중요하게 논한 페쇠의 이론을(강진숙, 2016) 근거로 하여 최근 미디어에서 보도되는 아동학대와 관련된 뉴스를 페어클러프(Fairclough, 2001)의 비판적 담론분석방법을 적용하여 알아보고자 하였다. 페어클러프는 언어에는 체계가 있고 마찬가지로 담론에는 질서가 있다는 것을 중심으로 특정의 제한적인 텍스트 분석의 관점에서 담론의 실천성에 대한 중요성을 논했다(Bell & Garrett, 1998/2004). 본 연구에 있어 문제의식의 출발점은 사회적 약자인 어린이들이 아동학대로 인해 더 이상 죽음으로 내몰리는 상황이 재현되지 않기를 기대하는 것에 있다. 따라서 비판적 담론 분석의 틀 가운데 텍스트들의 내적 관계와 외적 관계 분석을 수행하여 아동학대뉴스담론의 실천적 함의를 찾아보고자 한다(Fairclough, 2001). 궁극적으로 본 연구는 언론과 사회가 만들어내는 아동학대 담론의 메커니즘이 갖는 영향력과 문제점을 성찰하기 위한 기초 자료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한다.

2. 담론의 정의와 비판적 담론분석

1) 담론의 정의

언어학적 접근에 따르면, 담론(discourse)이란 한 문장 이상으로 이루어져 의미를 이루는 집합체로 정의된다(Crossley, 2005). 이러한 담론이라는 용어는 학술적인 측면에서부터 광의의 지식 영역에 이르기까지 흔하게 접할 수 있는 개념이 되었다. 그리고 우리는 무의식 혹은 의식적으로 언론 및 대중적 영역에서 특정 주제나 쟁점에 관한 담론들을 접함과 동시에 소비하게 된다(조항제 · 김영찬 · 이기형, 2015). 다시 말하면 담론은 중립적인 말이나 글이라고 보기 어렵고 의도를 가지고 하는 말이나 글로 정의된다(원용진, 1999). 이런 담론을 분석하는 행위는 상징적인 매개를 통하여 사회적 행위가 나타나 물질화되고 구체적인 산물이 된 텍스트 자체를 분석하는 과정이다. 즉, 담론분석이란 사회적 관계 안에서의 상호작용뿐 아니라 사회구조의 획일적인 질서 및 변동, 그리고 실천적 확대를 이해하고자 하는 분석방법의 하나인 것이다(신진욱, 2011). 이와 관련하여 폐쇠는 언어의 ‘절대적 종속’이나 ‘절대적 자율’만을 주장했던 마르(Marr)나 스탈린(Stalin)과는 반대되는 입장을 취했다. 그는 언어가 계급에 종속되어져 그 이상의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각자 다른 입장에서 어떻게 말해지고 있는가 하는 것에 주목하면서 담론적 실천을 중요하게 논하였다(강진숙, 2016). 누군가가 발화하고 멈추는 것이 아니라 발화가 실천에 이르기까지의 인과과정에 의미를 두며 이는 곧 담론의 주체에 대한 논의로 이어진다.

담론구성체는 말하는 주체와 대주체로 나뉠 수 있는데, 대주체의 경우 일련의 인정과정을 통해 말하는 주체에게 인식되지 않는 상태의 영향력을 행사하면서 주체가 이 영향력에 착취당하는 형태를 만들게 된다. 따라서 담론분석은 특정한 텍스트의 구조(specific textual structure)에 주목한 형태에서 담론의 생산과 수용의 과정에 인지적 · 사회적 맥락도 포함해 파악해야 하는 매우 중요한 요소로 판단된다. 폐쇠(Pêcheux, 1982: 강진숙, 2016, 21쪽 재인용)가 담론의 주체형태를 보는 출발점은 인간의 주체성이나 활동이 아니라 “생산관계의 재생산과 변혁에 대한 이데올로기적 조건”에 있다. 그리고 이는 담론적 실천과 연관된다. 또한 담론적 실천 속에서 담론의 주체형태가 형성되는 과정을 거치며 여기서의 주체범주는 앞서 재생산과 변혁의 전망 속에서 다양한 형태로 구성되는 것이다(강진숙, 2006, 21쪽). 이는 동일한 언어체계를 갖고도 사람들은 다른 방식으로 사용할 경우가 있어 사용하는 입장에 따라 의미가 달라지기 때문이다(강진숙, 2016). 결국 담론은 우리사회의 다양한 구조를 반영하여 정치담론뿐만이 아닌 정책담론, 그리고 사회담론 및 미디어 담론

등을 만들어낸다(이기형, 2006). 특히 뉴스담론의 언술 주체는 수용자를 ‘우리’라는 주체로 호명함으로써 ‘그들’ 범주에 속한 행위자들과 대립적 위치로 독자들을 이끄는 방식을 취하는데 이것이 폐쇠가 말한 동일시라는 주체형식의 특성으로 간주된다(강진숙, 2016). 예컨대 우리가 직접 접하지 못한 어떤 대상의 자세한 묘사와 내포된 의미를 전달하기 위해서는 문자 및 언어표현 단계가 강조된다. 최대한 객관적으로 정리된 뉴스 텍스트라도 텍스트가 형성됐던 시기의 사회맥락과 글쓴이의 문화적 배경이나 사회적 지위 등이 담겨 있다. 따라서 담론분석은 담론 생산자의 의도뿐 아니라 시대적 배경과 텍스트의 연계성, 그리고 사회적 영향력을 나타낸다(김신영 · 윤순진, 2015).

담론 분석의 인식론적 토대를 구축한 대표적 사상가인 미셸 푸코(Michel Foucault)는 언어의 사용이 사회문화적으로 발생하는 행위들과의 상관관계에 대해 인식론적 관심을 보였다. 그는 담론이란 특정한 역사적 시기에 나타나는 특정 주제에 대해 말할 수 있게 언어를 제공하는 일련의 진술들이며 이는 곧 사람들의 지식을 드러내는 방식이 된다고 주장하였다(Foucault, 1971/2012). 푸코(1971/2012)에 의하면, 담론은 일상 언어와 다른 특징을 지닌다. 담론은 전문 지식을 생산하거나 재생산하는 제도 영역에서 쓰이는 전문적인 언어 양식으로서 이해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이미 발화된 담론은 각 담론 주체에 의해 활용되는 동시에 구체적인 힘을 갖고 이것을 사용하는 방식을 따르게 된다. 이를테면 병원을 찾은 의사의 직업적 진술이 갖게 되는 의학담론의 영향력은 즉각적인 힘을 발휘하게 된다(문학이론연구회, 2002). 이렇듯 담론은 주체화가 될 수 있는 각각의 영역이 존재한다. 그러므로 푸코는 담론을 사전적인 의미로 정의하기보다는 오히려 늘 새로운 의미를 생산하는 담론의 규칙성과 주체형성의 방식을 발견하고 탐구하는 데에 초점을 둔다(Foucault, 1966/2012). 이러한 맥락에서 볼 때, 담론과정은 의미생산과정인 동시에 주체형성과정이자, 즉, 일정한 담론형성의 규칙성에 근거하여 단어표현이나 명제가 담론으로 구성되는 의미화과정을 거친다면, 또 다른 한편으로는 특정한 담론 생산을 통해 주체가 형성되는 주체화과정이 나타나는 것이 담론과정의 특징이고 의미인 것이다.

2) 비판적 담론분석과 담론 권력

담론분석 방법론 중에서도 비판적 담론분석은 담론을 언어적 텍스트와 기호체계로 분석하는 것을 넘어서 사회의 총체적 상황에서 특정한 의미를 촉발하는 실천적 계기에 초점을 둔다. 분석의 주요 흐름은 기존의 다양한 담론분석 연구를 결합하는 형태를 갖는데 이는 거시적인 중요성을 포함한 사회정치적 담론을 중심으로 살피는 것을 의미한다(Jung, 2006).

이러한 관점에서 담론은 텍스트의 일부임과 동시에 담론적 실천으로 간주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비판적 담론분석의 분석틀은 세 가지 차원인 텍스트 실천, 담론적 실천, 사회적 실천 등으로 구분된다(이경락, 2013). 주목할 것은 텍스트의 미시적 실천과 거시적 실천의 관계적 측면이다. 먼저 미시적 실천을 나타내는 내적관계분석은 어휘나 문법, 결합, 텍스트 구조를 중심으로 살펴며 어휘의 선택과 동사의 사용 및 접속사 선택을 통한 문장 내의 연결성을 찾아내야 한다(Fairclough, 1992; 서덕희, 2003 재인용). 이러한 담론을 텍스트 분석 차원에 한정하는 것이 아니라 궁극적으로 사회적 실천까지의 함의를 끌어내는 방식을 취해야 한다. 이를 위해 담론이 형성된 과정과 담론이 추구하는 바를 심층적으로 분석해야 하는데 이는 발화자의 특성과 발화의 구체적 맥락을 집중하여 살펴보면 된다. 즉, 직접적인 상황맥락에서부터 사회와 문화 및 제도와 같은 좀 더 거시적인 차원에서의 접근 방법을 시도하는 것이다. 이를테면 경제적인 측면뿐 아니라 권력이나 이데올로기와 관련된 정치적인 측면 및 정체성의 문제와 연관된 사회문화적인 내용까지 분석의 대상이 된다. 이러한 사회적 실천 분석의 장점은 특정한 구조적 가능성이 선택 혹은 배제되는 방식과 오랜 시간에 걸쳐 특정한 사회생활의 영역에서의 선택들을 가능하게 하는 방식을 채택하게 해 주는 데에 도움을 준다(Fairclough, 2003). 그러므로 비판적 담론분석에서의 담론은 구조이자 과정으로 볼 수 있고 텍스트를 포함한 하고 있으나 그것으로 환원되기 어려운 사회정치적 실천이다(신진욱, 2011). 또한 특정 사회 내의 권력과 지배구조, 그리고 사회적 불평 등에 주목하는 분석방법이다(이기형, 2006). 정리하자면 비판적 담론분석방법은 기존의 담론분석인 텍스트분석을 통한 미시적 의미를 알아봄과 동시에 사회 정치적 의도 및 담론 권력의 영향력으로 사회 안에서 그것이 어떻게 작동되는지를 파악할 수 있는 방법으로서 의미가 있다(조진욱, 2016). 또한, 이러한 방법을 토대로 담론의 안과 밖에서 이루어지는 미디어의 권력 작용이 파악된다.

그러면, 뉴스담론을 통해 나타나는 권력은 어떻게 정의되는가? 푸코(Foucault, 1975/2003)는 인간의 생각과 행동을 통제하여 사회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조건이 바로 권력이라고 설명했다. 여기서의 권력은 아는 것에 대한 힘이고 이는 곧 지배 권력으로 승화되는 특징을 갖는다(한희진, 2012). 결국 권력이란 어떠한 대상을 이해하고 인식하기 위한 필수 조건인 것이다. 이러한 푸코의 권력성에 대한 관점은 담론을 통한 역사적인 조건과 권력관계를 조명해왔다. 그러나 푸코의 담론분석은 담론에서 형성되는 권력의 비판적 측면을 넘어서서 긍정적 권력의 구성 가능성을 파악하기가 어렵다는 점에서 검토가 필요하다(강진숙, 2016). 비판적 담론 분석에서 중요한 것은 담론의 의미구성과 함께 언어와 제

도들을 통한 권력 행사 및 실천 방식에 있다. 사회 안에서의 공적 담론(들)은 이들 담론을 지지하고 채택하는 사람들에게 주는 특혜와 같은 것이 존재하게 되며 이를 누리는 주체가 대주체라고 파악했다. 더욱이 담론은 특정 이슈에 관한 주제를 바라보는 관점에 대해 해석하는 틀과 이를 걸러줄 수 있는 필터를 제공하는 역할을 하는데 이때 일종의 ‘진실효과(truth effects)’를 동반하여 담론의 또 다른 참여자에게 사물이나 사건 및 사안을 ‘담론화된 진실’로 받아들여지게 만든다(Bennett, 1998). 이는 언론이 전달하는 사안을 진리라고 믿게 되는 것과 유사하다. 다행히도 권력이 있는 곳에 저항이 있을 수 있다고 주장한 푸코의 논리가 들어맞는 지점을 찾아서 문제를 해결을 모색해 볼 수 있다.

이를 위해 중요한 것이 비판적 담론분석 과정에 연구 영역뿐 아니라 연구대상을 둘러싸고 있는 전체적인 부분에 주목해 보는 방법이다(이기형, 2006). 이와 관련된 선행연구로는 담론의 물질성과 적대성을 강조하며 2000년대의 한국 사회의 ‘교실붕괴’를 둘러싼 진보와 보수언론의 담론투쟁을 폐쇄의 담론이론에 근거한 연구가 있다(강진숙, 2006). 또한 비판적 담론분석 방법을 적용해 4대강사업을 둘러싼 한국천주교의 환경담론을 분석한 사례(김신영·윤순진, 2015)나, 최근 이슈가 되는 자살에 대한 기사를 갖고 페어클러프의 비판적 담론분석을 중심으로 연구한 사례(조진옥, 2016)도 발견된다. 특별히 조진옥(2016)의 연구는 한국사회의 자살률을 줄이기 위해 시급한 대안으로 심리치료의 확대 방법 등을 이용할 것을 권고하며 사회 실천적 분석의 측면을 논하기 위해 페어클러프의 분석방법을 적용하였다. 이상의 연구들의 함의는, 비판적 담론분석을 통해 의미의 대립과 권력 형성의 메커니즘, 그리고 사회적 의견 형성 과정 등을 포착할 수 있다는 점에 있다.

3) 미디어 담론의 영향력과 아동학대 선행연구

앨런 벨과 피터 개럿(Allan Bell and Peter Garrett, 1998/2004)은 미디어 담론 자체가 사회를 드러내 보여주는 특징을 강조한다. 미디어 담론은 이 세계의 문화와 정치, 그리고 사회적 삶의 형태가 어떻게 형성되고 표현되는지 반영할 뿐 아니라 제시자(presenter)의 역할도 수행하기 때문이다. 미디어 담론 자체가 사회의 특성에 기여하고 우리가 미디어를 통해 나타나는 언어를 연구함으로써 언어의 표면과 가장 밀접한 이데올로기 및 권력의 문제들을 드러낼 수 있는 것이다. 물론 이러한 역할이 제대로 수행되기 위해서는 적절한 방법의 미디어 담론 분석이 선행되어야 한다.

현대 미디어 체제에서의 담론 생산은 구체적인 기호 전달체 형태를 통해 메시지를 구성한다. 이렇게 담론이 생산되고 유통되는 과정에서 ‘언어’의 규칙과 상징적 전달매체의 형

식을 지닌 담론은 수용자에게 일정한 영향력을 행사하며, 여기서 생산된 담론은 특정한 방식으로 사회적 여론을 형성하는 계기로 작용한다. 나아가 이는 또 다시 수용자에게 배포되고 순환되는 과정을 거친다(Hall, 1980/1996). 그러므로 미디어 담론으로서 뉴스보도의 경우, 커뮤니케이션의 주요 참여자(보도기자, 시청자, 공정역역에 속하면서도 사회에서 다양한 범주에 속하는 참여자)들 사이에서 발생하는 상호작용의 메커니즘을 분석하는 데 유용하다. 분석과정에서 참여자들을 주체로 보는 이유는 현대사회에서 매체가 갖는 영향력과 함께 이들의 위치가 매우 중요하게 작용하고 있기 때문이다(Fairclough, 1998/2004). 물론 미디어가 형성하는 담론만 갖고 대중매체가 가진 의도의 고의성과 참여자의 메커니즘을 모두 파악하기는 어렵다. 그러나 담론으로 구성되어 파생된 내용의 영향력이 수용자의 인식에 작용하는 효과는 주목할 필요가 있다. 사람들은 흔히 자신이 직접 경험한 것을 통해 개념이 형성되거나 혹은 타자로부터 프레이밍 된 현실의 내용을 통해 스스로 자신의 머릿속에 이미 가지고 있는 사물의 존재 양식에 대한 이미지를 규정화하고 재구성한다. 또한 이에 근거해 어떠한 상황을 판단하고 행동에 옮기는 과정에서 수용자는 미디어를 통해 자신이 알고 있거나 기억하게 될 이미지를 창출 혹은 변화시키게 된다(임순미, 2011). 이처럼 미디어가 특정 대상에 대한 인식을 어떻게 형성하고 담론을 형성하는지와 관련하여 ‘원영이 사건’ 분석의 바탕이 되는 아동학대 선행연구를 다음과 같이 살펴보고자 한다.

아동학대 담론 연구는 국내에서 미미하게 이루어졌다. 아동학대와 관련해서는 주로 사회복지학과 사회학, 그리고 아동학 및 법학 관련하여 주로 논의되어 온 선행연구들에 의존하는 것도 이 때문이다. 여기서의 아동학대의 개념은 국가와 각 사회마다 그 내용에 차이가 있다. 우리나라는 아동학대를 아동복지법 제3조 제 7호에서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정신적·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과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이라고 정의하고 있다(백경희, 2016, 147쪽). 이에 대해 이은주(2014)는 아동학대 현황과 쟁점을 분석하면서 현재 전국적으로 운영되는 아동보호전문기관 시스템은 어느 정도 구축되어 있으나 기관의 역할적 한계가 있다고 설명하였다. 아동학대 전문기관의 주 업무는 신고접수와 현장조사, 그리고 사후대책처리 시스템인 아동보호서비스 제공의 과정을 처리하는 것이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사후처리비용 등이 증가하기 때문에 실제적 예방 시스템을 갖추기가 어렵다고 본 것이다.

이러한 아동학대 관련 선행연구를 살펴본 결과 학대의 원인과 구조에 따라 그 유형이 다음과 같이 분류되었다. 먼저, 아동 성폭력 학대의 내용을 주로 다룬 김오남(2004), 이은

주(2006), 그리고 최주혜(2016)의 연구가 있었으며, 아동학대의 원인을 가정폭력과 연관하여 살핀 박은민(2009), 송주영(2011), 그리고 이정희와 박선영(2012) 등의 연구가 있었다. 아동학대와 관련하여 주로 많이 다루어진 연구는 법리검토적 측면의 내용이었다. 김중세(2008)와 문영희(2010)는 아동인권과 아동복지법에 대해 연구하였고, 고명아(2015)는 아동학대 행위개념을 어린이집에서 벌어지는 사건을 중심으로 두고 법리검토를 시도했다. 이세원(2015)과 원혜옥(2015), 그리고 백경희(2016)는 아동학대의 전반적 대책의 실효성과 친권제한의 실질적 적용방법 등을 논의한 연구를 시도했다. 다음으로 아동학대 예방정책과 관련된 선행 연구로는 홍미와 김효진(2007)이 아동들의 방임실태와 아동학대 정책과제를 논했으며 정혜숙(2011), 김혜정과 조한나(2015), 그리고 김은정(2016)은 아동학대 현황과 재발 방지를 위한 연구를 한 바 있다. 앞서 살펴본 바에 따르면 2012년 이전의 아동학대 관련 선행 연구는 사후분석 연구가 주를 이루었다. 그러나 2015년 이후 연구된 주제들을 보았을 때 점차 아동학대 현황과 쟁점을 논하고 이에 대한 방법을 제시하는 형태의 아동학대 담론이 확장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아동학대 행위자와 관련해서는 이복희(2007)가 학대자의 정신의학적 측면을 분석한 결과 부모가 정신병리학적 특성을 갖고 있거나 신경적·심리적·성격구조상에 문제가 있는 경우 아동학대 확률이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부모의 아동학대가 아동의 행동문제나 또래수용 및 가족기능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이에 대한 문제 해결이 시급하다고 제안했다. 이러한 결과는 가족이라는 구성원 사이에서 발생하는 학대로 인한 아동의 비정상적 행동이 악화될 수 있는 것에 대한 경고적 차원의 논의가 된다.

근래에 들어서는 아동학대 사안에 대한 원인과 예방, 그리고 효과적 접근 방안에 대한 연구도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김현옥, 2016; 정규석, 2016). 학대 가해자의 처벌적 측면에서 강동욱(2011)은 아동보호와 아동학대 방지를 위해 학대행위자에 대한 조치가 기존의 다른 범죄자의 경우를 동일하게 적용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학대행위자가 친부모일 경우에는 처벌만이 문제해결의 방법이 아니라 가정보호가 우선시 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하기 때문이다. 학대당한 아동에 대한 친권제한의 실효성과 관련, 국내의 경우는 아동학대를 행한 친권자에 대해 각 개별법(민법, 아동복지법, 가정폭력처벌법)에 기인해 직접적인 제재를 받는데, 이 경우 신청수단의 경로에 따라 친권 제한의 정도와 기간 및 청구권자가 달라지게 된다. 따라서 법적인 측면에서는 차라리 민법의 친권제한 제도로 통일하여 규율하는 것이 더 큰 혼란을 막을 수 있다고 제시한 것이다(백경희, 2016). 이렇듯 아동학대는 국가의 적극적 개입 및 사회적 차원의 대응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는 문제로 간주되고

있고, 다양한 학문분야에서도 문제제기와 탐색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는 현안이다.

3. 연구문제와 분석방법

1) 연구문제

앞의 이론적 논의에서 살펴보았듯이, 담론은 특정한 규칙을 형성하여 권력의 영향력을 행사하며, 특정한 텍스트 실천과 사회적 실천을 수행하는 과정을 통해 담론의 의미들을 현실화한다. 본 연구의 목적은 비판적 담론분석을 통해 아동학대 담론의 사회적 의미의 형성 방식과 실천적 함의를 규명하는 데 있다. 이를 위해 다음과 같은 연구문제들을 설정하였다.

연구문제 1. '원영이 사건'에 대한 아동학대 뉴스담론의 텍스트 범주에서 어떠한 담론형성의 규칙과 권력의 작용이 나타나는가?

연구문제 2. '원영이 사건'에 대한 아동학대 뉴스담론의 내적 관계 차원에서 텍스트적 실천은 어떠한 특징과 의미를 나타내는가?

연구문제 3. '원영이 사건'에 대한 아동학대 뉴스담론의 외적 관계 차원에서 사회적 실천은 어떠한 함의를 지니는가?

2) 분석대상 및 분석방법

(1) 분석대상 선정

본 연구는 아동학대 사망 사건 가운데 최근 이슈가 되었고 아직까지도 논란이 되고 있는 평택 어린이 실종 사건인 '원영이 사건'을 중심으로 비판적 담론분석을 실시하기로 하였다. 이를 위해 주요 일간지 가운데 매체의 대중성을 고려하여 〈경향신문〉, 〈동아일보〉, 〈조선일보〉, 〈한겨레〉 등 4개를 최종 선정하였다. 이는 각 4개의 신문이 매체의 성격을 다양하게 파악하는 것이 가능한 일간지라고 판단했기 때문이다(조진욱, 2016). 구체적으로 이들 각 신문은 뚜렷한 의제와 논조를 갖고 있으며 단순한 정보전달의 역할적 측면에서 나아가 한국사회에서 여론의 형성을 이끌고 있어(류용재 · 최진호, 2016), 본 연구의 분석대상으로 적합하다고 보았다.

위 4개의 일간지 가운데 뉴스담론의 분석 대상은, 2016년 3월 10일부터 2016년 10

월 4일까지 보도된 뉴스들로 선정했다. 선정 이유는 평택 7살 아이 실종사건인 원영이 사건이 공개수사로 전환된 2016년 3월 10¹⁾을 기준으로 하여 최근까지의 시기에 이 사건의 재판이 이어지고 있어 관련 기사가 집중됐기 때문이다. 각각의 기사 검색은 경향신문사(<http://www.khan.co.kr>)과 동아일보사(<http://www.donga.com>), 그리고 조선일보사(<http://www.chosun.com>) 및 한겨레신문사(<http://www.hani.co.kr>)에서 제공하는 기사서비스를 중심으로 이용하였다. 검색 키워드로는 1차 단계로 ‘원영이 학대’를 투입하여 스트레이트 기사와 사실 및 칼럼 및 기획 기사를 포함한 뉴스 전체 기사를 검색하였다. <경향신문> 외 3개 일간지에서 총 95건의 기사가 추출되었다. 2차 단계는 추출된 기사들 중에서 ‘원영이 사건’으로 재검색하여 보다 구체적인 접근을 시도했다. 그 결과 총 87건의 기사가 추출되었으며 그 가운데 본 연구에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기사를 제외하여 총 83건의 최종 분석대상을 선정했다. 여기서 최종적으로 ‘원영이 사건’으로 세부적인 검색어 추출을 행한 이유는 본 사건의 논지에서 벗어난 기사들은 제외하고 연구에 맞는 기사를 함축하여 검색하기에 적합한 키워드였기 때문이다.

(2) 분석방법

본 연구는 담론의 사회적 의미를 구체화 하고자 비판적 담론분석방법을 사용하였다. 구체적으로 신문기사의 뉴스담론을 분석대상으로 삼았다. 주지했듯이, 페어클러프는 비판적 담론분석에서 담론을 텍스트의 일부임과 동시에 담론적 실천임을 강조한 바 있다. 즉, 담론분석은 세 가지 층위, 곧 텍스트 차원, 담론적 실천 차원, 사회적 실천 차원 등을 총체적으로 고려하여 이루어져야 한다(이경락, 2013). 이를 통해 텍스트의 미시적 실천이 거시적 실천에 이르는 과정을 분석할 수 있다. 여기서 내적관계분석은 미시적 실천으로 출발선을 갖는다. 어휘나 문법, 결합, 텍스트 구조를 중심으로 살피며 어휘의 선택과 동사의 사용 및 접속사 선택을 통한 문장 내의 연결성도 파악한다(Fairclough, 1992; 서덕희, 2003 재인용). 이러한 비판적 담론분석의 모형은 <그림 1>과 같다.

중간 층위에 있는 담론적 실천은 텍스트와 사회적 실천 사이에서 양자를 중재하는 역할을 하는데 주로 텍스트가 생산되고 소비되는 방식에 관심을 두고 출발한다. 그리고 담론이 생산되고 분배되며 수용되는 과정을 분석하는 차원이라고 볼 수 있다(Fairclough, 2003/2012; 김신영·윤순진, 2015 재인용). 이에 따라 텍스트 실천과 담론적 실천의 내적

1) 지홍구 (2016, 3, 10). “원영이를 찾습니다” 평택 7살 아이 실종사건, 공개수사로 전환. <매일경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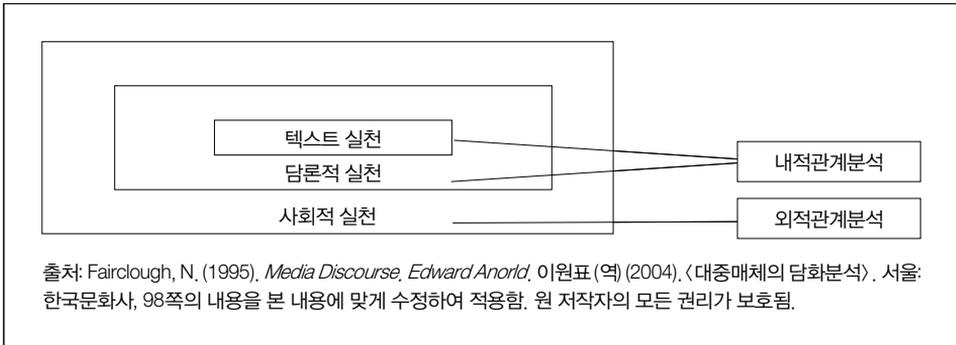


그림 1. 페어클러프의 비판적 담론분석

관계를 분석하는 과정에서 발화자의 특성 및 발화의 구체적 맥락을 통해 담론이 추구하는 바를 심층적으로 분석하는 것이 가능해진다(김신영 · 윤순진, 2015). 궁극적으로 페어클러프(2003)는 내적 관계 분석에 담론 수준의 분석을 ‘장르(genres)’, ‘담론들(discourse)’, ‘스타일(style)’ 등 세 가지 유형으로 나누어 그것의 실천적 의미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제시하는 방법을 제시하였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도 뉴스에 나타난 중심적 발화 및 언어에 근거하여 발화자의 특성뿐만 아니라 발화 맥락의 스타일을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마지막으로 담론분석을 통한 외적 관계분석의 방법을 사용하여 사회적 실천 영역에서의 진정한 함의는 무엇인지 도출하고자 했다. 이러한 작업의 과정은 “사회적 실천”으로서의 뉴스 생산에 사회 논리적 작업의 토대를 제공할 뿐 아니라 뉴스담론의 구조를 통찰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강진숙, 2016, 186쪽).

4. 분석결과

1) 텍스트의 범주화를 통한 담론 형성의 규칙성 및 권력성

본 연구 주제에 맞는 기사를 범주화하기 위하여 먼저, 공적 담론으로서의 신문 기사를 통한 아동학대 현상에 대한 진술체계를 기사 제목의 텍스트를 통해 살펴보고자 하였다(서덕희, 2011). 그 내용은 <표 1>과 같다.

<표 1>의 내용을 참고로 일간지별 기사 유형을 알 수 있었다. <동아일보>의 경우는 전체적인 맥락에서 핵심 가해자는 원영군의 “계모”라고 묘사하였고 원영이에게 화장실은

표 1. 각 언론사별 주요 헤드라인 텍스트

종류	기사 헤드라인
경향신문	<p>단순기사: 평택 실종 7세 아이 원영이 부모 암매장 자백, 평택 실종아들 시신 열흘간 집에 방치하다 암매장(2016, 3, 12)/원영이 굶기면서 아이템 구입에 6000만원 쓴 계모(2016, 3, 15)/경기교육청 “아동학대 대응 담임교사 연임제 검토”(2016, 3, 16)/경찰, 원영이 친부-계모 살인죄 적용(2016, 3, 16)/원영이 계모-친부 살인죄 기소(2016, 4, 14)/원영이 사건 ‘피의자’ 계모, 친부 첫 재판 열려(2016, 4, 25)/원영이 화장실서 겨울3개월 지내(2016, 7, 11)/원영이 사건 ‘살인죄’인정 계모 징역 20년-친부15년 선고(2016, 8, 10)/“반성 없냐” 원영이 계모, 징역 20년 판결 불복 항소(2016, 8, 14).</p> <p>사설 외: ‘제2의 원영이’를 막는 법(2016, 3, 14)/왜 ‘계모’, ‘계’부가 문제인가(2016, 3, 18)/방정환 선생이 보는 2016년, 아동인권 현 위치는…(2016, 4, 1).</p>
동아일보	<p>단순기사: 원영이에게 화장실은 ‘감옥’이었다… ‘평택 실종 아동’ 숨진 채 발견(2016, 3, 12)/한겨울 석 달 간 욕실 감금… 온몸에 찬물 - 표백제 세레(2016, 3, 14)/원영이 숨진 다음날 “애 잘 있지?”, “밥 잘 먹어” 부부 속인수 문자(2016, 3, 14)/원영이 굶긴 계모, 게임 아이템에 4000만원 써(2016, 3, 16)/학대 80%가 부모… “내가 양육” 주장 땀 다시 공포의 집으로(2016, 3, 22)/원영이 친부, 아들 살해 후 “아이 날으려…” 정관수술 복원문의(2016, 4, 4)/검찰, ‘원영이 사건’ 친부-계모 살인죄 기소(2016, 4, 4)/“상처로 얼룩진 원영이…메스 대기가 미안했다”(2016, 4, 12)/원영이 사건 첫 공판, 친부 “아이들에게 잘하면 더 큰 피해 갈까봐” 방청객 분노 눈물(2016, 5, 27)/원영이 사건 왜?… “계모 ‘학대 대물림’ - 친부 가정 지키려”(2016, 7, 11)/원영이 사건 ‘계모 무기징역 - 친부 징역 30년 중형·檢 ‘살인의 고의성 보여’(2016, 7, 12)/원영이 사건 ‘학대 행위 날날이 공개되자…’ ‘역장이 무너진다’, “어른들이 미안해”(2016, 7, 12)/법원, ‘원영이 사건’ 계모 징역20년-친부도 15년 선고(2016, 8, 10)/“항소! 항소!”…원영이 사건 관대처벌에 방청객 ‘분노’(2016, 8, 10)/검찰 “원영이 계모-친부 양형 지나치게 온정적”(2016, 8, 10)/원영이 사건 ‘살인죄 인정’…계모 징역 20년 - 친부 15년형(2016, 8, 11)/평택 원영이 사건 ‘친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2심 서울 고법서 맡아(2016, 8, 17).</p> <p>기획: 초중고 가정조사 때 학부모 직업-소득까지 파악해야 하나(2016, 3, 15)/준비 안 된 ‘엄마-아빠가 부른 비극’… ‘부모교육’ 서둘러야(2016, 3, 16).</p> <p>사설 외: 송송 뿜린 아동학대 방지 매뉴얼 언제까지 방치할 건가(2016, 3, 14)/‘부모 되기 교육’이 필요하다(2016, 3, 22)/아동 학대 뒤에 숨은 비정한 부모들(2016, 4, 14)/어른들이 막을 수 있었던 죽음(2016, 8, 11).</p>
조선일보	<p>단순기사: ‘신원영군 사건’ 현장검증…주민들 “살인죄로 처벌하라” 피켓시위에 ‘락스통’도 가져와(2016, 3, 14)/원영이 사건 ‘계모친부 살인 혐의로 검찰 송치(2016, 3, 16)/작년 아동학대 판정17%증가, 5년 새 ‘갑질’로…가해자의 80%는 부모(2016, 3, 16)/“아들 찬물 학대 후 소주 2명 나눠 마셔”… ‘원영이 사건’ 수사 경찰 일문일답(2016, 3, 16)/원영이 사건 ‘첫 공판, 계모-친부 “죽을 줄 몰랐다”…檢 ‘예상했을 것’(2016, 5, 27)/화장실서 숨진 원영이 밥그릇 사진 공개…엄동설한 매트 한 장에 하루 한 끼(2016, 7, 12)/원영이 사건, 무기징역 계모가 원영이 죽은 후 나눈 문자 내용 ‘충격’… “우리 잘 살자”(2016, 7, 12)/원영이 사건, 계모의 최후변론 “살아 있는 동안 원영이 위해 기도하겠다…남편은 선처 부탁”(2016, 7, 12)/원영이 사건 ‘계모 징역 20년에 불복해 항소… “죽을 줄 몰랐다”(2016, 8, 11).</p> <p>기획: 일본은 6만1676원, 한국은 1813원…말뿐인 아동보호정책(2016, 3, 29).</p> <p>사설 외: 아동학대 근절을 위해 ‘행동하는 모성’(2016, 6, 4).</p>
한겨레	<p>단순기사: 악마 같은 부모…원영이 죽음 감추려 뻔뻔한 거짓말(2016, 3, 13)/원영군 현장검증…분노한 주민들 ‘락스통 시위’(2016, 3, 14)/원영이 학대해 숨지게 한 김씨, 모바일 게임에 6천만 원 써(2016, 3, 15)/원영군 계모 “남편과 단둘이 행복하게 살려고 범행”(2016, 3, 16)/원영이 사건 ‘계모-친부 둘 다 살인죄 적용(2016, 3, 16)/락스 붓고 또 붓고’ 경찰 수사에서 드러난 계모 학대(2016, 3, 16)/‘제2원영이 막자’…가정 내 학생 학내에 방 조례 추진(2016, 3, 17)/‘자식인데 어찌 그리 잔혹’…천륜 저버린 인면수심(2016, 3, 19)/‘학대사망 원영이’ 계모 무기징역-친부 징역 30년 구형(2016, 6, 7)/원영이 사건 ‘계모 판결 불복’…항소장 제출(2016, 8, 11).</p> <p>사설: 인간성 잃어가는 아동학대 사회(2016, 3, 13)</p>

‘감옥’이었다고 표현하며 원영이가 추운 겨울에 6일을 굶은 상태에서 찬물 세례를 받아야 했음을 비난했다.²⁾ <조선일보>의 경우 ‘원영이 사건’을 두고 사건 초기의 기사에는 ‘굶주림’, ‘끔찍한 학대’ 등의 용어가 지속적으로 등장한다(이동휘, 2016, 3, 14). <한겨레>는 원영이가 초등학교 입학식에 오지 않자 학교 쪽이 “의무교육관리심의위원회에 아이를 대동해 참석해 달라”고 요구한 상황과 이에 불응한 신씨 부부를 학교 교사가 경찰에 신고하면서 밝혀진 사건의 전개 과정을 설명했다. 또한 텍스트 안에서 친부 및 계모, 그리고 이들의 행위를 지칭하여 ‘악마 같은 부모’, ‘뻔뻔한 거짓말’의³⁾ 용어를 사용했다. 당시만 해도 원영이에 대한 호명이 ‘평택 실종 어린이’라는 명칭으로 불리는 시점이었다. 하지만 같은 해 2월 14일 신씨 부부의 신용카드 내역을 보고 경찰이 이에 대해 추궁하면서 사건은 ‘실종 사건’이 아니라 ‘실종 아동 압매장 사건’으로 전환되는 국면을 맞이한다.⁴⁾ <경향신문>의 텍스트들은 “원영이를 보고 화가 머리끝까지 치솟았다”와 “학대를 계속해”(최인진, 2016, 3, 12), 그리고 “락스 원액 2리터를 붓고”, “찬물을 뿌린 뒤 그대로 방치해”⁵⁾처럼 학대의 정황을 상세하게 표현했고 이런 내용이 중복되었다. 더욱이 이 사건이 세상의 비난을 피할 수 없는 또 다른 이유를 8월 14일자 1심 재판의 판결에 불복 항소한 내용을 담으며 ‘반성 없냐’라는 제목으로 제시하였다. 구체적으로 친부는 판결에 항소하지 않은 반면 계모는 판결에 항소한 부분을 다름으로써 아이를 사망에 이르게 한 가해자의 반성이 결여된 것을 비판하고 자하는 검찰 측의 판단을 드러냈다.

사건의 전말이 드러날수록 4개 일간지는 신씨와 김씨 모두 외부에서 봤을 때 행복한 부부였지만 안에서는 “악마 같은 부모”였다고 유사한 뉘앙스를 내비친다. 특히 신씨에 대해서는 “상대 여자를 만난 것을 후회”, “아버지께 죄송”등으로 그의 자백을 간단하게 묘사했다면 김씨의 경우는 “남편은 죄가 없다”라고 “소리쳤다”라는 묘사와 “밥도 주지 않고”와 “자신의 게임 아이템 구입을 위해서는 거금을 이용”했다는 표현으로 김씨의 범행 정황과 삶의 태도를 알 수 있는 내용들이 주를 이루었다. <동아일보>⁶⁾는 ‘학대 대물림’이라는 헤드라인을 중심으로 김씨의 성장과정 중 계모에 의해 아동학대를 당한 진술을 정리했다. 이

2) 김호경 · 남경현 (2016, 3, 12). 원영이에게 화장실은 감옥이었다...‘평택 실종 아동’ 숨진 채 발견. <동아일보>.

3) 김기성 (2016, 3, 13). 악마 같은 부모...원영이 죽음 감추려 뻔뻔한 거짓말. <한겨레>.

4) 최인진 (2016, 3, 12). 평택 실종아동 시신 열흘간 집에 방치하다 압매장. <경향신문>.

5) 김정훈 · 최인진 (2016, 7, 11). 원영이 화장실서 겨울 3개월 지내. <경향신문>.

6) 동아일보 (2016, 7, 11). 검찰, 원영이 계모 ‘무기징역’ · 친부 징역 30년 구형.

와 동시에 법정에서 김씨를 “감정통제가 불가능한 편”, “어린시절 신체학대를 받은 경험이 있는” 사람으로 표현한 것을 제시해두었다. 그러나 이는 김씨 개인이 처벌에 대한 감형을 목적으로 진술한 내용일 수 있어 정확한 분석에 의한 설명이 뒷받침되어야만 하는데 그런 내용은 반영되지 못했다.

무엇보다 각 언론사마다 헤드라인과 구체적 텍스트 안에서 가장 강조되는 단어는 ‘계모’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친부가 오히려 학대에 협조한 정황이 드러나 이를 격하게 혐오하는 여론이 형성되기 시작했다. 그렇다면 원영이 사건의 원인이 재혼가정이었기 때문에 발생했다고 판단할 수 있는 것일까? 실제로 재혼가정에서 벌어진 범죄이므로 그 사실을 부정하기 어렵다. 계모와 친부는 원영군을 암매장하고 돌아와 “원영이 잘 있지?”, “밥 잘 먹고 양치질도 했다”는 등 원영이의 안부문자를 일부러 주고받으면서까지 자신들의 범죄 은폐를 시도했다고 표현되기도 했다.⁷⁾ 더욱이 신씨가 계모 김씨의 악행을 외면한 이유가 본인의 혼인관계를 유지하려 목적에서였다는 것으로 그 의미가 전달되면서 김씨 또한 남편과 행복하게 살려고 범행을 자행하게 됐다는 주장이 보도를 통해 나타났다.

다음으로 각 신문의 논조나 의견이 발현되는 형태를 중심으로 일간지별로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 살펴보았다. <경향신문>의 경우 아동학대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교육청의 시스템 보완의 필요를 논한 것을 알 수 있었다. 아동학대의 본질적 문제의 접근을 변호사와 종교인, 그리고 기자들의 의견을 통해 전달했고 이 가운데 대표적인 분석기사로는 2016년의 국내 아동인권 실태를 고발한 내용이 있었다. 분석결과 권력의 주체로서 교육기관과 법기관의 전문가뿐만 아니라 종교인 등의 권위를 빌어 아동학대 상황의 진단과 대안 마련의 촉구를 하고 있는 내용이 중심적인 축을 이루고 있었다. 두 번째로 <동아일보>의 경우는 ‘원영이 사건’과 관련해 같은 기간 가장 많은 기사가 보도된 일간지다. <표 1>의 <동아일보>의 텍스트들을 보면 “방청객 분노”(2016, 8, 10), “어른들이 미안해”(2016, 7, 12), “정부는 대책 회의로 할 일 다 했나”(2016, 10, 4) 등을 통해 사건 정황뿐만 아니라 시민들과 검찰이 생각하는 양형이 온정적이라는 판단의 구체적 내용들을 보도하며 정부의 정책적 역할의 필요성을 주로 논했다. 또한, 주로 사건을 대하는 시민들의 입장에서 정부의 자세가 안일해 보인다는 지적을 통해 사건 과정의 상세한 묘사를 자주 다뤘으며 사건을 바라보는 대중과 이를 해결해야 하는 정부의 역할을 번갈아가며 집중 조명한 것이 특징이었다. 이은택(2016, 3, 15)은⁸⁾ 아동학대 사건·사고가 각 가정의 특수성과의 연관성이 높게 나타난 보

7) 남경현(2016, 3, 14). 원영이 숨진 다음날 “애 잘 있지?” “밥 잘 먹어” 부부 속임수. <동아일보>.

건복지부의 발표를 근거로 제시하며 일선 학교에서 가정환경을 최소한이라도 파악하고 있어야 하지 않나 하는 의견을 기사화했다. 이는 교육부의 상부지시를 비판적으로 파악하고 성찰해야 하는 계기를 제공하는 의도와도 연결될 수 있다(서덕희, 2011). 이를 통해 언론이 사건을 전달하고 평가하며 대중의 분노를 이용해 정부를 비판하는 형태가 보여 여기서 는 권력의 주체가 언론으로 귀결되는 것으로 해석해 볼 수 있다.

세 번째로 <조선일보>의 경우는 어떠했을까? 텍스트를 보면 “주민들 ‘살인죄로 처벌하라’”(2016, 3, 14)로 사건에 대한 시민들의 반응을 홍지아와 천혜영(2011)의 연구에서 나타난 것과 유사하게 기사를 내보내 앞서 <동아일보>의 예처럼 대중의 여론을 형성하려는 태도의 측면이 보였다. 또한 “아들 찬물 학대 후 소주 나눠마셔”(2016, 3, 16)등의 기사를 통해 친부와 계모를 단죄하는 당위성을 드러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이가 “죽을 줄 몰랐다”(2016, 5, 27)는 진술 등을 보도함으로써 사건의 본질적 측면이 가해자의 변명 등에 가려지는 양상을 보이기도 했다. 반면, 기획기사의 경우 아동보호정책을 위한 인력의 확충 등에 대한 논의와 아동학대예방을 위해 사회가 함께 나서야 하는 부분의 메시지를 전했다. 이러한 측면에서 <조선일보> 또한 언론이 권력주체로서의 역할을 이어가고 있다고 추측할 수 있었다.

마지막으로 <한겨레>의 경우 두 가해자의 행위를 두고 “뻔뻔한”(2016, 3, 13), “어찌 그리 잔혹…천륜 저버린 인면수심”(2016, 3, 19)이라고 말하고, “원영이 사건은 살인죄”(2016, 8, 10)라고 묘사하였다. 단순기사의 경우는 원영이 사건을 두 사람의 극악무도한 범죄라고 단정 짓고자 하였으며 한 건의 사실에서는 인간성을 잃어가는 우리 사회의 비통함을 나열했다. 구체적으로 “아동학대를 막을 촘촘한 제도적 장치”, “근본적 가치에 대한 성찰” 및 “고귀한 인간”이라는 표현을 빌어 아동학대 대책의 일회성과 면피적 특징을 비판했다. 대신에 이런 현실을 통해 인간의 존엄성에 대한 고찰의 필요를 논했다. 즉, 반복되는 아동학대 사망 사건 또한 우리와 별개로 다뤄져야 하는 문제가 아니라고 보았으며 인간으로서의 도덕적 가치관이 상실되어가는 시대에 대한 인식의 필요를 주장했다. 이는 푸코의 윤리학에서 인간이 왜 윤리적 존재이어야 하는가를 밝히고자 한 것과 유사한 맥락이다. 여기서의 윤리적 존재로서의 가치는 저항주체로서의 위상을 논하는 것인데(김분선, 2015), 분석결과 <한겨레>를 통해 나타나는 의견은 이렇듯 인간으로서의 윤리적 측면을 강조하

8) 이은택 (2016, 3, 15).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초중고 가정조사때 학부모 직업-소득까지 파악해야 하나. <동아일보>.

는 것이 특징적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위의 4 개 일간지의 헤드라인과 사설 등을 함께 참고하여 전체 텍스트를 범주화 하여 규칙성을 발견할 수 있었다. 우선 ‘원영이 사건’의 경우 학대의 잔혹성과 살해의 고의성 여부로 인해서 가해자에 대한 “비난 및 혐오 담론”의 범주 유형이 나타났다. 두 번째로 텍스트 안에서 주로 언급되는 계모와 친부, 그리고 친모에 관한 논의로 “친권 및 양육권 담론”의 유형 또한 나타났다. 세 번째로 아동학대 가해자의 특징적 측면으로서 우리사회에서 최근 지속적으로 발생되고 있는 가정 내 계모의 학대로 인한 “가정폭력담론”의 유형으로 분류가 가능했다. 네 번째로 사건을 바라보는 시민들의 분노가 반영된 피켓 시위 등을 통해 나타났던 담론의 유형이다. 이러한 유형의 특징은 이 사건을 바라보는 대중이 주체가 되어 억울하게 죽어간 원영이 뿐만 아니라 유사한 다른 피해자에 대한 우려로 ‘아동인권담론’ 유형을 확장해 나가는 양상이 발견된 데 있다. 특히 아동인권담론의 형성과정에서는 앞서 강진숙(2016)의 설명에서처럼 폐쇄가 주장한 〈우리〉와 〈그들〉의 대립적 구조가 나타나 동일시의 특성이 두드러졌다. 여기에 이야기의 주체적 위치에서 칼럼과 사설의 헤드라인, 그리고 기사 내용 안의 텍스트들을 다시 한 번 검토하여 두 가지 유형의 담론을 더 이끌어 낼 수 있었다. 앞에서 논의된 바와 같이 〈경향신문〉(2016, 3, 14)의 양육권 보장과 관련된 전문가의 의견은 우리사회에 갈수록 늘어가는 재혼가정에 대한 법적 보호 장치가 없음을 날카롭게 비판하는 사항으로도 해석이 가능했다. 한편 〈동아일보〉에 글을 올린 임현석(2016, 3, 16)과 권영민(2016, 3, 22)은 궁극적인 아동학대 대응 방안으로 ‘부모 교육’을 같은 목소리로 강조했다. 이들의 의견으로 말미암아 페어클러프의 비판적 담론분석 과정에서 첫 번째 분석틀의 방법을 적용한 결과 가장 큰 대안제시로서 거시적인 “아동학대정책담론”과 “부모교육담론”의 유형이 형성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렇게 텍스트의 범주화 구분으로 나타난 담론 유형은 1) 가해자들에 대한 “비난 및 혐오담론”, 2) 재혼가정의 “가정폭력담론”이 나타났으며 또 다시 3) “아동인권담론”이 먼저 형성되었고 다음으로 4) 친권 및 양육권 담론 5) 부모교육담론 6) “아동학대정책담론”의 추출이 가능해졌다.

2) 아동학대 이슈 대상의 내적관계분석과 의미화

담론의 텍스트적 실천분석은 대상 텍스트들의 내용구성과 서술상의 특징을 중심으로 하나의 텍스트 내에서 문장과 어휘들이 결합하는 방식에서 나아가 텍스트가 구조화되는 방식을 취한다(김신영·윤순진, 2015). 그러므로 본 연구에서는 먼저 앞서 정리한 기사의 범주화를 통하여 각 텍스트 내의 어휘 등을 종합하여 내적관계분석 및 의미화 과정을 살펴보고

표 2. 언론사별 텍스트의 내적관계분석 및 의미

책임범주	언론사	텍스트의 내적관계 분석의 예	특징 및 의미
학대 행위 당사자	경향	“애들이 미워서”, “게임 아이템 구매”, “수시로 때리고 밥을 굶기고”, “신씨와 단둘이 오뎅하게”, “신씨를 베란다에 일간 내버려 뒀다가”, “신씨는 신군을 보호하지 않고 수수방관”	부모라는 탈을 쓴 인간의 잔혹함과 이기심
	동아	“신군의 몸에는 잔혹한 학대 흔적”, “위에는 아무런 내용물 없었으며”, “신씨는 김씨와의 재혼생활에 만족”,	아동인권의 부재, 재혼가정 아이에 대한 사회의 무관심
	조선	“말을 듣지 않아 가뻐다”, “지속적 학대 행위는 있었으나 보호조치 없었음”, “친부 죽을 수도 있다는 생각을 했지만 신경을 쓰지 않았다”, “우리 잘 살자”, “피해자에 대한 학대는 수용소에서 벌어질 만한 잔혹한 수준, 나중에는 살해할 의도”, “신씨는 아동학대 처벌 두려워 방임”, “나도 계모로부터 학대를 받아왔으며 선처 요구”	재혼가정에서의 친부와 계모의 학대의 형태와 이기심
	한겨레	“3개월간 감금”, “원영이를 떼어놓고 둘이 여행을 다녀오고 아이가 굶다 가정아동센터에서 밥을 얻어먹기도 한 것”, “아이가 가출했다고 신고”, “인두껍을 쓴 부모들의 천륜을 저버리는 행위”, “우리공동체의 인간성 한 없이 추락”, “부부가 말을 맞춰 놓은 상태”	친부와 계모의 아이 방임, 살해 후 암매장 사건을 은폐
법체계	경향	“국가는 가정을 보호할 의무” … “친권 앞에 속수무책”	국가와 기관의 관심과 관련 정책 실천방안 촉구
	동아	“학교에서 발 빠르게 경찰에 신고한 덕분”(2016, 3, 14), “학대예방 위해 학부모 정보 교사가 알고 있어야”	
	조선	“국가가 해야 할 일을 민간에 위탁하고 예산 지원 부족”, “2014년 박근혜 대통령의 아동학대 근절 연설. 2년 지난 지금 여전한 아동학대 사고에 국민 분노”, “2000년 아동학대 ‘영훈이 사건’으로 아동복지법 만들어짐”, “2013년 서현이 사건으로 아동학대 특별법 만들어짐”,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죄 인정 여부”	
	한겨레	“원영군 누나의 친권 친부 신씨가 갖고 있지만 친권상실 확실”, “경기도 교육청 가정내 학대 예방 조례 추진”	
아동 인권	경향	“장기결석아동 전수조사를 통해 밝혀진 끔찍한 사건”, “폭력을 휘두를 부모라도 없다면 사회에 내팽겨쳐질 수밖에 없는 모순”	외부의 도움으로 밝혀진 ‘원영이 사건’
	동아	“퇴근한 아버지를 그리워했다.”, “추모객들이 장난감을 놓고 가기도 함”, “부모가 악어의 눈물을 흘리며 사고사로 위장하기도”	아이에게 아버지는 의지할 대상이 아니었음
	조선	“법부터 바뀌보자고 뭉침”, “국회방문시 같은 내용 법안 이미 상정, 12월 31일까지 통과되지 않으면 자동폐기”, “1인 시위 등으로 만장일치로 통과”	아동인권을 위한 다른 단체들의 노력
	한겨레	“피부 일부가 괴사되고 섬유화 됨”, “아동학대 가해자 5명 중 4명은 부모”	아동학대의 흔적과 가해자의 위치
정책 비판 및 대안 마련	경향	“아동학대 사건계기 ‘담임교사 연임제’”, “장기미출석 아동들 관리 시스템 미흡”	올바른 제도와 정책 시급
	동아	“학대아동뿐만 아니라 재혼부부도 방지”, “부모교육을 사회와 연계”, “학대아동 보호할 시설과 인력 부족”	부모교육 실시 필요
	조선	“한국 사회의 사회관계망과 사회적 지원, 사회 신뢰도 해결할 과학기술 필요”, “교육으로 아동학대 예방”	과학기술 지원으로 아동학대 방지
	한겨레	“아동학대 장소 전체의 80.1%가 가정”, “특이점 학대 발생 장소 유치원, 어린이집인 경우 61.4% 늘어남”, “원영이 남매’특하면 때리고 굶기고 학교도 안 보내”	학대아동 학교 및 아동 교육기관의 관리

자 했다. 분석결과 책임 범주는 텍스트의 내적관계를 분석하고 그 의미를 파악해 ① 행위 당사자의 문제, ② 법체제적인 문제, ③ 아동인권의 문제, ④ 아동학대 정책비판 및 대안 마련 문제로 분류가 가능했다. <표 2>는 앞의 논의를 언론사별로 나누어 주요한 사례를 제시한 내용이다.

이야기의 맥락 안에서 언어 의미를 올바르게 해석하기 위해서는 전체적인 이야기 경로의 중심을 먼저 봐야 한다. 신문기사를 통해 기사 및 이미지를 보게 되는 과정에서 “그가 어떤 말을 했다”와 “그가 어떤 말까지 했다”, 그리고 “그렇게 말한 게 전부다”라는 식의 표현은 이미 특정한 방식의 해석이며, 그것을 읽는 독자에게도 은연 중 자신들의 해석 방식을 심어 넣는 결과를 낳는다. 그러므로 텍스트를 통해 어떤 대상은 인식 되면서 ‘사실’의 차원을 획득하며, 사실이 의식될 때는 동시에 자의적 해석과 가치판단을 동반하게 된다(전동열, 2005, 14쪽). 따라서 텍스트가 가진 내적 관계를 분석하고 의미를 발견하는 것은 담론 분석을 하는 과정에서 매우 중요한 작업이 될 수 있다.

그러므로 첫 번째로 본 텍스트에서 구현하는 담론의 구체적인 맥락을 알아보기 위해 4개 언론사에서 서술한 아동학대 희생자인 원영이와 원영이 가족, 그리고 가해자에 대한 호명을 파악하고 그 특징적 의미를 분석했다. 분석한 결과 희생자인 원영이의 경우는 “신원영군”, “원영이” 등의 실명으로 호명되었고 “암매장 당한 희생자”로도 명명되고 있었다. 가족들의 경우 “친모”와 “누나” 등으로 호명되고 있었으며 반면 가해자의 경우는 친부 “신모씨”와 계모 “김씨” 혹은 그냥 “친부”와 “계모”, 그리고 “악마” 등으로 명명되는 양상이 나타났다.

황슬하와 강진숙(2014)은 온라인 공간에서 나타나는 여성호명을 담론의 장으로 연결한 바 있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도 아동학대 사망자, 아동학대 피해자의 호명과 가해자의 호명방식의 차이에 대해서도 새로운 사회문화적 문제점을 발견할 수 있었다. 특히 ‘원영이 사건’처럼 평생 한 아이의 이름이 아동학대 사건 유형의 한 상징처럼 호명되는 것에 문제는 없는 것일까? 반면 가해자의 경우 친부, 계모, 신씨, 김씨 등으로 호명되고 있어 이는 누구를 보호하고 누구를 비판하고자 함인지 정확하게 알 수 없는 상황으로 이어질 수 있다. 이에 따라 중대 사건의 보도 안에서 자행되는 이러한 호명 현상에 대한 문제점도 발견이 되었다.

특히 주목할 것은, 이 사건이 최근에 지속적으로 반복되고 있는 재혼 가정 내 계모의 학대에 의해 아동이 사망한 사건 가운데 하나라는 점이다. 2013년 소풍가고 싶었던 딸을 때려 숨지게 한 울산 계모 사건 및 이와 유사한 칠곡 계모 사건(이투데이, 2014, 4, 7), 2016

년 초 여중생 딸을 때려 숨지게 하고 미라 상태로 방치한 목사 아버지와 계모의 사건이 대표적이다(최모란, 2016, 2, 12). 선행연구에 따르면 재혼가정의 아이들은 친부모와 떨어져 살 때의 상실감과 삶의 변화에서 오는 거부감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고은영·서영석, 2012). 이러한 맥락에서 ‘원영이 사건’의 경우 학대는 계모가 단독으로 행하였고 친부는 방임한 상태로 사건의 전개가 설명되었기 때문에 계모에 의한 아동학대 담론이 형성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대부분의 텍스트를 통해 “계모 김씨는 원영이에 대한 양육책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3개월간 감금하고, 학대해 ‘사망’이라는 결과에 이르게 했다”는 등의 흐름이 주를 이루고 있어 계모이기 때문에 아이를 학대했다는 인과관계를 부정할 수는 없다.

그러나 이를 보는 미디어 보도의 시각에도 간혹 차이가 있었다. 김진호(2016, 3, 18)는 이 사건을 콩쥐, 심청이, 장화와 흥련, 신데렐라 같은 대중적인 고전의 이야기들의 희생자인 계모 및 계부에 의해 학대당한 내용을 현실에 대입하는 것은 모순이라고 설명한다. 이는 은연중에 자녀학대를 계모학대로 동일시하는 경향을 생산하는 논리이며 사건의 본질이 ‘계모의 학대’가 아닌 ‘온라인 게임중독으로 인한 충동조절장애’ 때문인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오히려 아동학대의 대부분은 친부모가 저지르므로 가정 내 학대 행위자의 형태가 아니라 이들 모두를 부모라고 규정하고 부모교육을 받아야 하는 대상으로서 보았다. 즉, 혈연위주의 병폐를 제거하고 아동학대의 원인에 대한 정확한 진단과 대안 모색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기술 내용은 독자들의 해석적 측면을 특정한 방향으로 유도하고 해석 방식에 영향을 미치기도 하므로 주의가 필요하다(김신영·윤순진, 2015). 말하는 이의 편향적 시각을 지나치게 개입시켜 아동학대 사건의 일부가 계모·계부의 문제가 아니라고 단정하는 것 또한 모순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렇듯 담론 안에서 나타나는 동일한 언어체계, 그리고 같은 맥락의 내용도 서로 다른 논리성을 연결하여 주장하는 형태가 나타남을 알 수 있다. 담론분석을 할 때에 누가 어떻게 말했는지의 ‘어떻게’에 무게중심을 두는 이유이다(정재철, 2011).

지금까지 ‘원영이 사건’을 보도한 4 개 일간지의 텍스트를 분석했을 때에도 분명 재혼가정의 아동학대 문제를 더 세심하게 바라봐야 할 필요성이 대두된다. 내적관계분석과의 미화 과정을 통틀어서 재혼가정에 대한 부모교육 및 아동인권과 관련된 논의, 그리고 가해당사자의 죄질에 관한 비판적 담론이 형성되어 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의 내용들을 통해 나타난 아동학대의 주된 담론은 일반가정뿐만 아니라 재혼가정의 부모에게도 부모교육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부모교육담론이었다. 부모교육을 통해 친부모 및 계모와 계부에 의한 아동학대를 개선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하는 것이다. 하지만 문제의 사안에

비했을 때 단순하게 교육적 논의로만 담론을 형성한 것에는 아쉬움이 있다.

3) 아동학대 담론의 외적관계 분석을 통한 실천적 함의

이어서 페어클러프의 비판적 담론분석 방법론이 뉴스 보도를 통한 담론형성과 함께 마지막 단계인 사회적 실천(social practice)으로 어떻게 구현되는지 살펴보고자 하였다(김신영 · 윤순진, 2015). 이에 덧붙여 ‘원영이 사건’ 뉴스담론의 사회적 · 실천적 형태와 그로 인한 한계점은 없는지 알아보려고 했다. 분석결과 4 개 언론사의 기획기사 및 칼럼이 주를 이루어 아동학대 대안에 대한 고민을 심도 있게 다루는 형태로 나타났다. 홍지아와 천혜영(2011, 295쪽)에 따르면 보도기사의 경우 기획기사, 사설 및 칼럼으로 장르를 이동하면서 문제의 심각성이 강조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전문가의 의견이 등장하는 흐름을 갖고 있다. 본 분석 결과를 보면 앞서 내적 관계 분석 등을 통해 언론이 사건의 진상이 밝혀진 후에 해설 기사를 소개하며 시민들의 다양한 태도와 반응을 제시한 후에 다음으로 사회학자나 기자, 그리고 변호사 등의 의견을 통해 사건의 원인과 해결 방안에 대한 방향성을 제시하고 있다. ‘원영이 사건’에서 칼럼이나 사설이 등장하는 시기는 한 가지 사실이 입증 될 때 마다 집중되는 양상을 보였다. 사안의 중대성을 논의하는 접근방법은 아동학대에 대한 정부의 무관심과 정책의 미비, 그리고 부모교육의 절대적 필요성에 대해서 자주 언급하며 사태에 대해 중립적인 입장을 취하곤 했다. 그 결과 첫 번째로 아동학대 사건 · 사고가 끊이지 않는 요즈음 “아동학대 방지 매뉴얼”이 확고하게 자리 잡아야 한다고 제시된 텍스트를 주목할 수 있다. 예컨대, <동아일보>의 “원영이의 죽은 한이나마 풀어줄 수 있었던 것은…입학할 예정이었던 학교에서 발 빠르게 경찰에 신고한 덕분이었다”(2016, 3, 14), “한국의 아동보호전문기관은 사건의 접수부터 종결까지 모두 말아야 하는 업무과중에 시달리고 있다.”(동아일보, 이정은, 2016, 3, 14), “전문가들은 문제가 있는 부모로부터 아이를 격리할 시스템을 확보해야 학대를 막을 수 있으며…”(동아일보, 박창규, 2016, 3, 22) 등이다.

이와 함께 <동아일보>의 이정은(2016, 3, 14)과 박창규(2016, 3, 22)의 텍스트에서 나타난 것처럼 국내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열악한 상황이 재혼가정의 아이나 학대당하고 있는 아이들을 보호하고 관리하기엔 한계가 있음을 알리고 있다. 아동학대를 당한 아이들의 경우 일시적인 보호가 이루어진다 할지라도 다시 돌아갈 곳은 가정밖에 없는 사회 구조 안에서 학대는 반복되는 것이다. 따라서 이에 대해 사회안전망 구축의 필요성을 제시하는 사설이나 칼럼이 등장한 예를 볼 수 있다.

“경제력이 없는 배우자도… 이혼과정에서 양육을 하는 배우자에게 부양의 의미로 재산분할 비율을 높여주거나 그것이 어렵다면 양육하지 않는 배우자가 최소한 3년 내지 5년의 기간만이라도 안정적으로 아이를 양육할 수 있게 양육비를 공탁하게 해야…” (경향신문, 양소영, 2016, 3, 14)

두 번째로 앞의 텍스트의 내용처럼 파탄가정의 양육환경에 대한 상황적 요인을 나열한 것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이는 여성들이 이혼 후에 경험하는 어려움 중 가장 큰 요인으로 꼽히는 경제적 문제에 대한(Ko & Kim, 2009; Sayer, 2006; Son & Han, 2006; 손서희, 2013 재인용) 것과 같은 맥락에서 접근한 내용으로써 의의가 있다. 국가가 법적으로 이혼가정의 양육환경과 양육비 문제를 적극적으로 개입해야 하는 이유는 많다. 특히 지금의 제도대로라면 일부 이혼가정이 양산하는 불행한 아이들은 계속 늘어날 것이고 이는 결국 우리 사회에서 비일 비재하게 일어나는 아동학대의 한 형태가 가정 내의 책임으로만 귀속될 수 있는 우려를 포함하게 된다. 그러므로 위의 주장대로 국가는 가정을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으며 부모에게 아이가 버림받거나 죽임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국가가 적극적으로 나서기를 제안하는 것이다. 이는 사건의 문제에 대해 전체적인 부분을 고려함으로써 아동학대 사건을 하나의 지나가는 이슈로 볼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인식을 새롭게 하자는 내용에 가깝다.

“아동학대나 가정불화의 근본 문제는 부모로서의 책무에 대한 무지(無知)와 방기(放棄)가 심각한 상태에… ‘부모 되기 교육’을 사회 보육제도와 연계하여 정착시키고 이를 확산시켜야” (동아일보, 권영민, 2016, 3, 22)

“아시모⁹⁾는 ‘아동학대 예방교육’을 위한 계획을 준비 중이다. 아동학대 가해자의 기중처벌을 위한 법 개정을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사회 분위기도 바뀌어야 한다. 하지만 이 모든 노력에 앞서 교육이 가장 절실” (조선일보, 김미량, 2016, 6, 14)

9) 아시모란 아동학대방지시민모임의 줄임말이다. 원영이 사건과 관련한 1심 첫 공판에서 아시모는 ‘사형’을 적용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높이며 재판부의 재판 과정에 대해 피고인의 심리상태를 고려한 전문가의 의견을 들었다는 취지를 두고 큰 불만을 드러낸 바 있다(김현지, 2016, 5, 27).

세 번째로 앞서 〈동아일보〉(2016, 3, 22)와 〈조선일보〉(2016, 6, 14)의 텍스트에서 유추할 수 있듯이 각 신문에 기고한 전문가들 가운데 다수는 공통적으로 부모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부모교육을 위한 노력이 정부와 사회단체, 그리고 가정 안에서 함께 이루어져야 근본적인 가정 내 문제, 즉 가정 폭력을 예방할 수 있다고 해결방안을 제시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 모두가 부모교육에 대한 적절한 방법과 과정을 올바르게 제시한 텍스트라고 볼 수는 없다. 왜냐하면 같은 주장을 한 다른 텍스트들도 지속적으로 부모교육의 필요성을 강조하고는 있지만 형식적인 주장으로만 멈추고 있기 때문이다. 아동학대 예방 문제는 단순하게 논의만 하고 끝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 정말로 어떻게 부모교육을 할 것이며 이를 실천하게끔 도울 방법에 대한 대안이 각 항목별로 마련되어야 하는 사안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이에 대한 논의는 부족해 보인다. 물론 4 개의 언론사 모두 재혼가정의 아동학대 문제, 그리고 친부와 계모가 벌인 잔인한 아동학대 사건을 다양하고 유사하게 다뤘다. 그러나 이것이 아동학대에 대한 문제제기나 실천적 논의로 확대된다고 해석하기에는 몇 가지 아쉬운 점이 존재한다. 예컨대 텍스트에서 반복되는 “계모”와 관련된 비판적 논의가 재혼가정에 대한 관심과 문제 해결을 돕기 위한 방안을 제시하는 텍스트로 연결성이 약하다. 이는 언론의 서술 형태가 사건의 개요와 문제점을 지적하다가 나중에는 처벌적 사항만 지속적으로 보도하는 형태를 보임으로써 앞에서 계모에 대한 비난 등의 담론을 확장해 나가는 과정에서의 정교함이 부족한 탓으로 여겨진다. 그렇다면 아동학대와 관련해서 어떤 실천적 논의가 가장 큰 힘을 발휘할 수 있는 것일까?

“정치권은 매번 말만 앞세우는.. 대한민국은 아동 학대 방임 국가라는 말까지 나오는 이유다.” (조선일보, 김정하 · 오민아, 2016, 3, 29)

앞의 〈조선일보〉(2016, 3, 29)의 텍스트에서는 “매번 말만 앞세우는…아동학대 방임 국가”라는 표현을 통해 국가의 아동학대 관련 법체제를 변화시키고 나아가 정책적으로도 견고함을 갖길 기대하는 바가 드러났다. 즉, 잘 정비된 시스템 구축이 궁극적 문제해결을 도울 수 있기 때문에 국가와 시민, 그리고 각 가정이 이에 대한 안전망 구축을 위한 노력을 함께 할 것을 촉구하고 있는 것이다. 이는 아동학대 사안이 진보 · 보수를 막론하고 재발해서는 안 되는 사건이라는 것에 집중하여 문제해결을 위해 정부 및 관련 부처의 뚜렷한 정책 마련이 필요함을 강조한 것에 실천적 함의가 있다. 본 연구 이전에 2016년 초 여성변호사회가 아동학대 관련법 개정과 관련,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아동학

대처법)의 도입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것은 우리에게 낙관적 기대를 준다. 또한 피해아동의 복지를 지원하는 지방자치단체 관계자, 아동심리 전문가, 학교 관계자, 변호사와 의사 등 민·관·경이 ‘아동학대솔루션위원회’(가칭) 구성을 제안하는 등의 행보를 보여 온 것도 실천적 행동을 위한 노력으로 의의가 있다(박용하, 2016, 4, 1). 하지만 이러한 논의에 따라 법 개정이 잘 이루어진다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향후 학대피해자인 아동들의 근본적인 문제요소가 쉽게 해결되지는 않는다. 더욱이 앞의 논의대로 법리를 재검토하고 실행에 옮기기 위해서는 많은 시일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담론적 실천이 실행될 수 있도록 보다 현실적이고 구체화된 정부차원의 시스템과 사회 감시체계가 구축되어야 하며 이를 위한 미디어의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고 볼 수 있다.

5. 나가며

본 연구는 늘어만 가고 있는 아동학대 사고 가운데 아동학대로 인해 사망에 이르게 된 한 어린이의 억울함을 우리 사회가 얼마만큼 인지하고 있고 어떻게 해결해줄 수 있을지 알아보고자 하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하였다. 이러한 과정의 기사 및 사설 등의 기고 글의 텍스트 안에서 내적관계와 외적관계를 분석함으로써 사회 실천적 함의를 도출해내는 방법으로 페어클러프의 비판적 담론분석 방법을 적용하여 본 연구를 실시하였다.

분석결과, 4개 언론사의 논조는 유사한 듯 하였으나 보수와 진보의 특성을 추측할 수 있는 권력 주체의 차이가 일부 나타났다. 먼저, <동아일보>와 <조선일보>의 경우는 언론이 주체가 되어 사건을 분석하고 기술하여 정보를 전달하는 차원의 논의를 이어갔다. 반면, <경향신문>과 <한겨레>의 경우 사설 등을 통해 정책에 대한 비판적 논조를 드러내고 대안마련의 촉구를 다각적 입장에서 논의하려는 시도를 한 것을 알 수 있었다. 다음으로 텍스트의 범주화는 일정한 규칙성이 나타났으며 가해자에 대한 비난 및 혐오담론이 주를 이루었고 다음으로 가정폭력담론과 아동인권담론이 형성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또한 전문가들의 의견들을 통해 친권 및 양육권 담론뿐만 아니라 부모교육담론과 아동학대 정책담론에 대한 대안마련의 촉구 등으로 담론이 확대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러한 분석결과는 사회 안에서 변화가 이루어지는 구체적인 일상의 시간성의 상황을 비판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두 번째로 아동학대 이슈 대상의 내적 관계 분석을 통한 의미화를 알아본 결과 책임범

주가 학대행위 당사자와 법체계적인 문제, 그리고 아동인권과 관련된 문제 및 정책대안 마련 문제로 구분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러한 범주는 세부적으로 또 다시 언론사별로 부모로서 해선 안 될 범죄를 비판하는 내용과 아동인권이 부재한 곳에 살고 있는 아이들에 대한 사회의 무관심을 비판하는 내용으로 나뉘었다. 또한 재혼가정에서의 친부와 계모의 역할의 부재로 인한 아동학대의 증가에 대한 우려가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장기결석 미취학아동 전수조사가 '원영이 사건'을 밝힐 수 있는 첫 단서로서의 역할을 했던 것에 대한 함의다. 분석결과 언론사별로 차이는 있지만 본 사건의 경우도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 정책마련이라는 이상적인 틀을 제시하려고 노력한 바 있다. 재혼가정 및 한부모 가정의 입장에서도 양육적 환경이 더 세심하게 정비되어야 하고 아이들이 학대당하는 사실을 알았을 때 즉각적인 구조가 원활하게 이뤄줘야 하는 것을 강조한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논의가 모두 사회에 반영되는 데에는 아직까지 한계가 있음이 나타났다. 먼저, 현재 국내 아동학대 법안 정비 차원의 재원 투입 증가에 대한 이야기가 많지 않다. 결국 국가적 차원에서 다양한 지원이 수반되지 않을 때에는 매 사건마다 등장하는 시민과 전문가집단이 만든 담론 자체가 한시적 건의사항 정도로만 머물게 되는 것이다. 이러한 사건의 재발을 막기 위해서는 부모교육을 위한 정책의 마련과 실효성 있는 방안 모색에 집중해야 한다. 또한 아이에 대한 친권과 양육권에 대한 다양한 법리를 재검토하고, 사회적으로 아동을 하나의 인격체로 존중하는 문화의 정립이 요구된다. 국가 및 사회가 학대당하고 있는 아이들을 찾아내어 더 적극적으로 보호해야만 하는 것은 우리사회의 당연한 의무이기 때문이다.

본 연구는 한 아이의 억울한 죽음을 둘러싸고 발생한 사회구조적인 문제들을 담론분석과 실천적 의미들을 통해 도출하고자 했다. 다만 본 연구가 최근 발생한 아동학대 사망 사건 가운데 '원영이 사건'이라는 특정한 한 사건만을 중심으로 분석했기 때문에 유사한 아동폭력 사례들을 장기적 관점에서 자료 수집하여 어떠한 담론들이 생산되고 의미화 되는지 분석하기에는 부족함이 있어 아쉬움이 남는다. 따라서 후속 연구에서는 이러한 한계점이 반영된 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의 의의는, 비판적 뉴스담론 분석을 통해 텍스트의 내적 관계 및 의미의 분석을 수행하고, 이를 통해 궁극적으로 아동학대 재발 방지를 위한 논의의 확장을 꾀하는 데에 있다.

참고 문헌

- 강동욱 (2011). 아동학대행위자와 그에 대한 조치에 관한 고찰. <한양법학>, 34호, 97-115.
- 강진숙 (2006). '교육위기'담론의 의미와 주체구성 방식 연구. 한겨레신문과 조선일보 기사를 중심으로. <한국언론정보학보>, 33호, 7-52.
- 강진숙 (2016). <커뮤니케이션과 미디어교육연구의 주사위: 질적 연구방법론>. 서울: 지금.
- 고명아 (2015). 아동학대행위 각 개념에 대한 법리검토: 송도, 부개동 어린이집 사건을 중심으로. <법학연구>, 18권 4호, 61-70.
- 고은영 · 서영석 (2012). 재혼가정 청소년의 스트레스와 가족생활적응의 관계-가족경계혼란과 사회적 지지의 조절효과 검증. <한국심리학회지:상담 및 심리치료>, 24권 2호, 397-419.
- 권영민 (2016, 3, 22). [동아광장/권영민 '부모 되기 교육'이 필요하다. <동아일보>]. URL: <http://durl.me/dqzr7o>
- 김경하 · 오민아 (2016, 3, 29). 일본은 6만 1676원, 한국은 1813원...말뿐인 아동보호 정책. <조선일보>. URL: <http://durl.me/dqzrem>
- 김미량 (2016, 6, 14). [톱클래스 아동학대 근절을 위해 "행동하는 모성". <동아일보>]. URL: <http://durl.me/dqzuid>
- 김분선 (2015). 푸코의 윤리학 기획: 칸트의 「실용적 관점에서 본 인간학 서설」 분석을 중심으로. <문화와 융합>, 37권 2호, 393-429.
- 김선남 (2016). <미디어칼럼의 이해>. 서울: 시간의 물레.
- 김신영 · 윤순진 (2015). 4대강사업을 둘러싼 한국천주교의 환경담론 분석: 비판적 담론분석을 바탕으로. <사회과학연구>, 26권 1호, 319-343.
- 김오남 (2004). 부모의 아동 성학대 예방에 대한 실태와 요구도 및 교육프로그램 구성. <한국가정관리학회지>, 22권 4호, 73-84.
- 김은유 (2016, 3, 30). 정부, 아동학대 처벌 강화 "가해부모 친권 뺏는다". <아주경제>. URL: <http://durl.me/dqzun6>
- 김은정 (2016). 아동학대 현황과 예방정책. <보건복지포럼>, 233, 31-43.
- 김중세 (2008). 아동인권과 아동학대: 아동인권수준 제고방안. <법학연구>, 31집, 47-76.
- 김진호 (2016, 3, 18). [사유와 성찰 왜 '계모', '계부'가 문제인가. <경향신문>]. URL: <http://durl.me/dquqk>
- 김현옥 (2016). 아동학대에 대한 원인론적 접근. <여성우리>, 55호, 10-16.
- 김현지 (2016, 5, 27). 눈물마다 '원영이 사건' 재판...시민단체 "아동학대 범죄자, 사형해야". <포커스뉴스>. URL: <http://durl.me/dqzutw>
- 김혜정 · 조한나 (2015). 아동학대 예방 및 재학대 방지를 위한 상담 · 교육 프로그램 개발. <부산여성

- 가족개발원 연구보고서), 1-230.
- 동아일보 (2016, 3, 14). [사설] 승승 뚫린 아동학대 방지 매뉴얼 언제까지 방치할 건가. URL: <http://durl.me/dqzuxx>
- 류용재 · 최진호 (2016). 프란치스코 교황 방한과 한국사회의 위기 징후. <한국언론학보>, 60권 1호, 133-164.
- 문영희 (2010). 현행 아동복지법에 관한 고찰: 특히 아동학대와 관련하여. <한양법학>, 31집, 403-425.
- 문학이론연구회 (2002). <담론분석의 이론과 실제>. 서울: 문학과 지성사.
- 박선웅 (2000). 스투어트 홀의 문화연구: 이데올로기와 재현의 정치. <경제와 사회>, 45, 149-171.
- 박용하 (2016, 4, 1). 여성변회, '아동학대처벌법' 도입 등 법개정 추진. <경향신문>. URL: <http://durl.me/dqzw7p>
- 박은민 (2009). 아동학대로 인한 가출·비행 청소년의 현상과 경찰의 조력 방안.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9권 11호, 316-324.
- 박창규 (2016, 3, 22). 학대 80%가 부모... "내가 양육" 주장 땀 다시 공포의 집으로. <동아일보>. URL: <http://durl.me/dqzvag>
- 백경희 (2016). 아동학대에 대한 친권제한의 실효적 적용에 관한 고찰: 일본의 아동학대 방지 관련 법제와의 비교를 중심으로. <법학연구>, 57권 2호, 145-169.
- 서덕희 (2003). '교실붕괴' 기사에 대한 비판적 담론 분석: 조선일보를 중심으로. <교육인류학연구>, 6권 2호, 55-89.
- 서덕희 (2011). 담론분석방법. <교육비평>, 28, 218-239.
- 손서희 (2013). 이혼한 여성 한부모의 홀로서기 경험. <한국가정관리학회지>, 31권 2호, 59-75.
- 송주영 (2011). 청소년 비행에 있어서 아동학대의 영향에 대한 연구: 서양의 사례연구에 대한 검토. <소년보호연구>, 16호, 183-193.
- 신진욱 (2011). 비판적 담론 분석과 비판적·해방적 학문. <경제와 사회>, 통권 89호, 1-44.
- 양소영 (2016, 3, 14). '제 2의 원영이'를 막는 법. <경향신문>. URL: <http://durl.me/dqzvdv>
- 원용진 (1999). <텔레비전 문화연구>. 서울: 한나래.
- 원혜옥 (2015). 아동학대의 개념 및 실효적인 대책에 관한 검토: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을 중심으로. <법학연구>, 18권 4호, 31-60.
- 윤영철 (2009). 뉴스의 이해: 저널리즘의 이론과 실제. 연세대사회과학대 (편). <사회과학의 이해>. 서울: 연세대학교 출판부.
- 이경락 (2013). <SNS 정치담론의 의제형성과 의미구성 연구: 제18대 대선 관련 트윗에 관한 담론분석과 사회연결망 분석을 중심으로>. 성균관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이기형 (2006). 담론분석과 담론의 정치학: 푸코의 작업과 비판적 담론분석을 중심으로. <언론과 사회>, 14권 3호, 106-145.

- 이동휘 (2016, 3, 14). '신원영군 사건' 현장검증 ... 주민들 "살인죄로 처벌하라" 피켓 시위에 '락스통'도 가져와. <조선일보>. URL: <http://durl.me/dqzvk5>
- 이복희 (2007). 부모의 아동학대와 아동의 적응변인 연구. <교육문화연구>, 13권 1호, 99-121.
- 이세원 (2015). 아동학대 사망사건 판결에 관한 연구: 울산 계모 사건을 중심으로. <보건의사회연구>, 35권 2호, 254-286.
- 이은주 (2006). 성학대 피해 아동을 위한 서비스 개입 체계. <한국학연구>, 24, 71-96.
- 이은주 (2014). 아동학대의 현황과 쟁점. <월간 복지동향>, 192호, 16-21.
- 이정은 (2016, 3, 14). "'원영이 사건' 재발 막아야 하는데" 현장입력 업무과중에 이탈 ↑. <동아일보>. URL: <http://durl.me/dqzvnv>
- 이정희 · 박선영 (2012). 아동의 가정폭력경험 유형에 따른 교우 및 교사관계에 관한 연구. <사회과학연구>, 28권 2호, 249-271.
- 이투데이 (2016, 4, 7). '울산계모' 이어 '칠곡계모' 사건...의붓딸 죽이고 죽은 아이 친언니에게 덮어씌워 '천인공노할..'. URL: <http://durl.me/dqzvr7>
- 임순미 (2011). 무상급식논쟁을 통해본 보수의 담론 · 진보의 담론 - 신문 미디어의 프레임 분석을 중심으로. <한국정치학회보>, 45권 2호, 251-279.
- 임현석 (2016, 3, 16). '준비 안된' 엄마-아빠가 부른 비극... '부모 교육' 서둘러야. <동아일보>. URL: <http://durl.me/dqzvu>
- 전동열 (2005). <기호학>. 서울: 연세대학교 출판부.
- 정규석 (2016).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효과적 방안. <여성우리>, 55호, 17-21.
- 정재철 (2011). 한국신문과 복지 포퓰리즘 담론: 동아일보와 한겨레신문을 중심으로. <언론과학연구>, 11권 1호, 371-398.
- 정혜숙 (2011). 가정폭력과 아동학대의 중복발생과 관련된 국내 사회복지 현장 실무자의 경험에 관한 질적 연구: "따로 또 같이". <한국사회복지학>, 63권 3호, 83-108.
- 조재현 (2015). 아동학대의 예방적 과제로서 아동보육시설에서의 영상감시카메라 의무적 설치의 헌법적 문제 - 미국의 영상감시카메라의 운영에 관한 판례를 중심으로. <미국헌법연구>, 26권 2호, 261-300.
- 조진옥 (2016). 위협사회속 자살기사에 대한 비판적 담론분석. 페어클로(Fairclough)의 비판적 담론 분석을 중심으로. <한국심리학회지>, 35권 2호, 385-410.
- 진명선 (2016, 4, 25). 정부 "미취학·장기결석 학생 전수조사로 학대 피해 아동 35명 구했다". <한겨레>. URL: <http://durl.me/dqzvyy>
- 최모란 (2016, 2, 12). 부천 미이라 여중생 아버지 · 계모에 살인죄 적용...오늘 검찰 송치. <중앙일보>. URL: <http://durl.me/dqzw4p>
- 최주혜 (2014). 아동의 안전한 성장을 돕기 위한 체험교육 방안: 아동성폭력 및 아동학대 예방교육을

- 중심으로. 〈서울시 여성가족재단 연구사업 보고서〉, 1-93.
- 한희진 (2012). 미셸 푸코의 파놉티시즘에서 인식, 권력, 윤리의 관계. 〈의철학연구〉, 12권, 75-104.
- 홍미 · 김효진 (2007). 아동학대 및 방임실태와 정책과제. 〈보건복지포럼〉, 128, 47-59.
- 홍지아 · 천혜영 (2011). 존속살인 사건 보도기사의 비판적 담론분석. 〈현상과 인식〉, 35권 4호, 269-299.
- 황슬하 · 강진숙 (2014). 온라인 여성호명 담론에 대한 질적 연구. 〈한국방송학보〉, 28권 4호, 356-388.
- Bell, A., & Garrett, P. (Eds.). (1998). *Approaches to media discourse*. 백선기 (역) (2004). 〈미디어 담론〉. 서울: 커뮤니케이션북스.
- Bennett, T. (1998). *Culture: A reformer's science*. London, UK: Sage.
- Crossley, N. (2005). *Key concepts in critical social theory*. London, UK: Sage.
- Fairclough, N. (1992). *Discourse and Social Change*. London, UK: Polity Press
- Fairclough, N. (1995). *Media Discourse*. 이원표 (역) (2004). 〈대중매체 담화 분석〉. 서울: 한국문화사.
- Fairclough, N. (1998). Media political discourse: A framework. In A. Bell & P. Garrett (Eds.), *Approach to media discourse*. 백선기 (역) (2004). 〈미디어 담론〉. 서울: 커뮤니케이션북스.
- Fairclough, N. (2001). *Language and Power* (2nd ed.). London, UK: Longman.
- Fairclough, N. (2003). *Analysing Discourse: textual analysis for social research*. New York, UK: Routledge.
- Foucault, M. (1966). *The Order of Things*. 이규현 (역) (2012). 〈말과 사물〉. 서울: 민음사.
- Foucault, M. (1971). *L'ordre du discours*. 이정우 (역) (2012). 〈담론의 질서〉. 서울: 중원문화.
- Foucault, M. (1975). *Surveiller et punir*. 오생근 (역). (2003). 〈감시와 처벌〉. 서울: 나남.
- Fowler, R. (1991). *Language in the news: Discourse and ideology in the press*. London: Routledge.
- Hall, S. (1980). Enciding/Decidinh. In S. Hall et al, (Eds.), *Culture, media, language: Working papers in cultural studies*. 임영호 (편역) (1996). 〈스튜어트 홀의 문화 이론〉. 서울: 한나래.
- Jung, M. (2006). Diskurshistorische Analyse: eine linguistische Perspektive. In R. Keller (Ed.), *Handbuch soziawissenschaftlicher Diskursanalyse (1): Theoreien und Methoden* (2nd ed.) (pp. 31-54). Wiesbaden, DE: VS.
- Ko, E. J., & Kim, J. W. (2009). A study on the poverty of single parent families. *Social Welfare Policy*, 36(2), 219-236.
- Pêcheux, M. (1982). *Language, semantics and ideology*. US: St. Martin's Press.
- Sayer, L. C. (2006). Economic aspects of divorce and relationship dissolution. In M. Fine, & J. Harvey (Eds.), *Handbook of divorce and relationship dissolution* (pp. 385-406). New York, NY: Routledge.
- Son, J. Y., & Han, G. H. (2006). Marital quality, barriers to divorce, everyday stress and post-divorce adjustment: Focused on gender differences. *Journal of Korean Home*

Management Association, 24(1), 83-102.

Van Dijk, T. A. (1983). Discourse analysis its development and application to the structure of news. *Journal of Communication*, 33(2). 20-43.

최초 투고일 2016년 8월 9일

게재 확정일 2016년 11월 11일

논문 수정일 2016년 11월 30일

Abstract

Critical Discourse Analysis of the News on Child Abuse

Mainly about the Case of Wonyoung

Hae-Youn Kim

Doctoral Student, Chung-Ang University

Jin-Suk Kang

Professor, Chung-Ang University

The objective of this study is to criticize the inferior life environment and violent phenomenon of children, the social alienated class & minority through critical discourse analysis of news on child abuse as well as to search countermeasure. To this end, Critical Discourse Analysis of Fairclough was applied to look into the mode of forming discourse and implications of social practice with the articles of 4 domestic press companies mainly about the case of Wonyoung, one of the cases of abusing and murdering children, the recent issues. According to analysis, the main discourse extracted by generalizing for each press company is criticism & abomination discourse on offenders and domestic violence discourse causing child abuse. The intensive discourses are children's human right discourse, parental authority & child custody discourse, parents education discourse & child abuse policy discourse. As practical implication of discourse, Kyunghyang Shinmun, Dong-A Ilbo, Chosun Ilbo, Hankyoreh found practical implication about the solution of problem of child custody including parents education and parental authority issues. Although such discourse is expanded, however, it is found that the forum of social practice is not easily opened in comparison with the significance of child abuse issue. This is because while child abuse discourse currently tends to expand to gigantic discourse, effective countermeasure is not taken. The meaning of this study is to quest positions by which our social press formed child abuse discourse and drew social practical methods in the dimension of critical discourse analysis of Fairclough and to provide basic materials for solving social problem.

Keywords: child abuse, news discourse, Michel Pêcheux, Fairclough, critical discourse analysis